정읍시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일제 단속
자격증 대여·계약서 이중작성 등
적발땐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단

정읍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7일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 내용 홍보와 함께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알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와 자격증 미취득자의 부동산 매매알선 또는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부동산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코로나 진료소·호흡기 클리닉 신축

순창군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새로 조성해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순창군은 그간 음압텐트와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의 열악한 환경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의료진과 검사자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소를 새로 조성했다. 〈사진〉

선별진료소는 국비 2억7500만원 포함 총 7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보건의료원 옆 부지에 연면적 93㎡ 규모로 신축됐다.

신축된 선별진료소는 음압시설을 갖춘 진료실 2실과 검체채취실 2실, 방사선실, 비음압 시설인 안내실, 의료진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 동선을 분리해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검사 대상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몄다.

향후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 관리를 위해 이용되며 평상시에는 결핵, 홍역, 한센 등의 감염병 환자 관리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고도육성 3개 사업 국비 125억 확보

익산시가 고도(古都)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 고도육성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12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국비 등 총 179억원을 투입, 고도육성 사업을 통한 정체성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는 역사관, 교육장, 주민참여 공간 등 고도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다.

시는 유적 간 연계한 환승시설 등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편의증진 및 금마 고도지역〈사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은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마룡지와 서동생가터 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개된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한옥 지원 등으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 펼쳐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여 고도익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어촌으로 오세요"…군산시, 청년 정착 지원 대상·예산 4배 ↑

12월 19일까지 11명 모집

군산시가 내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 대상과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4배가량 늘리는 등 어촌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3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1700만원으로, 선정 인원은 3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까지 '2022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인 자로, 군산시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어업인과 2022년 귀어 창업 예정자다.

선정되면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1년 차 월 100만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 월 80만원으로 구분해 경영비 및 가계 자금을 3년 동안 차등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책 읽는 지자체 대상 고창군 3년 연속 수상

고창군이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6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책의 소중함과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창군은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등 각종 공모사업 ▲중장년층을 위한 연중 상설강좌 및 인문학 강좌 운영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과 '고창 한 책 읽기' 사업 ▲높을고창서평단 육성 ▲고창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책 읽고 사유하는 군민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고창군이 되겠다"며 "책읽는 도시 고창을 위해 고창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을 무사히 완료하여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고창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연말까지 '우리옷 한복' 특별기획전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남원에서 전통의복 한복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 겨울 주간'을 맞이해 연말까지 남원다움관에서 '보통사람들의 우리 옷 한복'을 주제로 '짓;다 2' 특별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짓;다 2'는 이야기와 맥락이 살아있다는 평을 받은 남원다움관 상반기 특별전 '천의 기억, 짓;다'에 이은 시리즈 두 번째 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남원 여성의 삶을 한복이라는 일상과 연계해 풀어냈다.

남원 여성의 삶과 의복의 맥락을 연결한 전시로 1920~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서도 주체적 삶을 꿈꾸며 근대사상을 의복에 반영한 신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개화기 이후 변화된 한복 형태와 의복생활 변화에 투영된 여성문화의 보편성을 남원지역 생활사와 함께 살펴보며 기획자의 의도에 공감하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